

“사랑의 헌혈로 어려움 함께 이겨내요”

두 달에 한번 헌혈 롯데아웃렛 수완점 100여명 참여 헌혈증 적십자사 기부 시각장애인 위한 점자 시보 만들어 농촌 일손돕기·호수공원 환경봉사도



27일 롯데아웃렛 수완점(점장 이충열·오른쪽 세번째) 임직원들이 '사랑의 헌혈 캠페인'에 동참하고 있다. <롯데쇼핑 제공>

“오늘은 헌혈하는 날입니다. 동참할 직원들은 광장으로 나와주세요.” 27일 오전 개점을 앞둔 롯데아웃렛 수완점 2만㎡(6110평) 규모 매장 전체에 헌혈 시작을 알리는 방송이 울려 퍼졌다.

롯데아웃렛 수완점은 매년 두 차례 열던 단체 헌혈 행사를 이달부터 두 달에 한 번씩 진행하기로 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지역사회가 혈액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접했기 때문이다. 이날 '사랑의 헌혈 캠페인'에는 임직원과 협력사 직원 100여 명이 참여해 온기를 나눴다. 헌혈 캠페인을 통해 모은 헌혈증은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혈액원에 기부됐다.

헌혈 버스에 가장 먼저 오른 이는 이충열(49) 점장이었다.

“헌혈은 종종 해왔지만 올해 1월 수완점장으로 부임한 이후로는 처음입니다. 20여 년 동안 타지에서 일해왔는데 고향인 광주에 도움을 줄 수 있어서 기쁩니다. 매장 돌보라 여념 없음을 직원들이 삼삼오오 참여하는 모습에 고마울 따름입니다. 우리 직원들의 헌혈과 나눔 실천이 조금이나마 지역에 보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행사를 담당한 김성숙(41)씨는 주민과 함

께하는 헌혈 캠페인을 만들기 위해 롯데아웃렛이 작은 선물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앞으로 헌혈 버스가 롯데아웃렛에 자주 올텐데 주민들도 캠페인에 참여하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생명 살리기에 동참하고 롯데아웃렛이 드리는 커피도 마시고 보람찬 하루 보내길 바랍니다.”

롯데아웃렛 수완점은 지난해 9월 10주년을 맞아 지역사회 공헌활동에 더 힘쓰기로 했다.

아울렛 직원과 점주 20여 명으로 구성된 '사롯데봉사단'은 2년 넘게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시보(市報)를 만들고 있다. 이들은 광주시가 보내온 점자 인쇄물을 재분하

고 시각장애인연합회에 등록된 1000여 명에게 우편 발송하는 작업을 맡았다. 점자 인쇄물에 대해서는 문의한이었지만 초등학교 자녀와 배우자 등 가족 단위로 참여하고 있다.

지난 연말에는 '93주년 점자의 날'을 맞아 광주시시각장애인연합회로부터 우수 봉사단 표창을 받기도 했다.

롯데아웃렛 수완점의 대표적인 상생 행보는 '수완호수공원 환경정화 캠페인'이다. 수완점은 지난 2015년 광산구와 협약을 맺고 매달 호수공원을 정화하고 있다. 광산구장애인복지관과 5년째 인연을 맺으며 명절마다 정성들어 만든 음식과 생필품 등

을 전달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 들어서는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단체 활동에 선포 나가지 못하고 있다.

앞선 데 덮친 격으로 지난 2월 코로나19 관련 가짜뉴스가 나돌면서 수완점 매출은 곤두박질쳤다. 하지만 롯데아웃렛은 지난 달부터 수완점에 입점한 식음료 업체 20곳을 대상으로 수수료를 인하, 지역 소상공인을 응원했다.

롯데아웃렛 수완점 '사롯데봉사단'은 다음 달부터 '점자 시보 만들기' '농촌 일손 돕기' 등 꾸준히 벌여온 봉사활동을 진행하며 기지개를 켜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오늘의 날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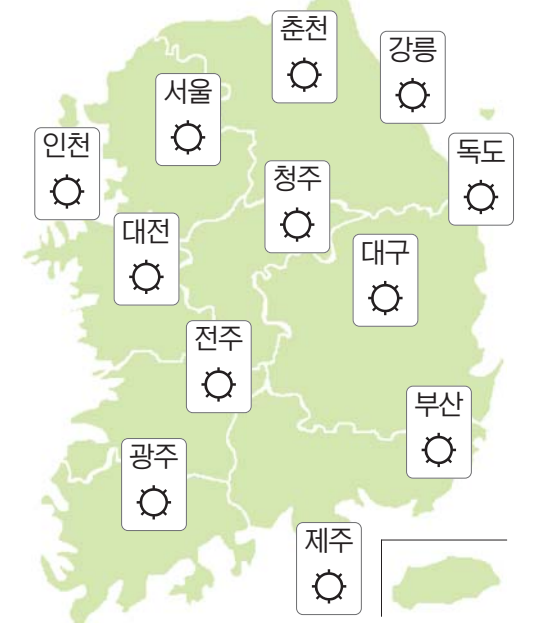
해돋이	05:45	달뜨기	09:11
해지기	19:16	달지기	---:--

따스한 햇살

고기압 영향으로 대체로 맑겠다.

광주	맑음	6/22	보성	맑음	4/20
목포	맑음	8/18	순천	맑음	7/22
여수	맑음	9/19	영광	맑음	4/19
나주	맑음	3/21	진도	맑음	6/19
완도	맑음	8/20	전주	맑음	2/21
구례	맑음	4/23	군산	맑음	5/18
강진	맑음	5/21	남원	맑음	2/21
해남	맑음	3/21	흑산도	맑음	9/18
장성	맑음	3/21			

◇ 전국 날씨



◇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파고 (m)	파고 (m)	파고 (m)	파고 (m)
서해 남부	앞바다	0.5	0.5	0.5
	면바다(북)	0.5~1.0	0.5~1.0	0.5~1.0
	면바다(남)	0.5~1.0	0.5~1.0	0.5~1.0
남해 서부	앞바다	0.5	0.5	0.5
	면바다(서)	0.5~1.0	0.5~1.0	0.5~1.0
	면바다(동)	0.5~1.0	0.5~1.0	0.5~1.0

◇ 물때

목포	간조	만조
	10:31 22:31	05:22 17:19
여수	05:55 17:56	11:50 --:--

◇ 생활지수

감기	뇌졸중	미세먼지
높음	보통	중음

◇ 주간 날씨

29(수)	30(목)	5/1(금)
8/24	9/25	15/27
2(토)	3(일)	4(월)
14/26	15/23	14/25

세한기업,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착한일터' 동참



㈜세한기업(대표이사 최영준) 직원들이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한상원) 기부 프로그램 '착한일터'에 동참하고 최근 헌혈 전담식을 열었다.

착한일터는 기업·기관·단체 임직원 5명 이상이 매월 급여의 일부를 어려운 이웃과 나누는 정기 기부 프로그램이다. 기부금은 광주 지역 어려운 이웃

들에게 전달된다.

최영준 ㈜세한기업 대표이사는 “직원들이 함께 나눔에 동참하여 그 의미가 매우 크고, 직원들이 흘린 땀방울이 나눔의 씨앗이 되어 어려운 이웃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첨단산단경영자협의회, 구미산단에 코로나 방역물품 후원



광주첨단국가산업단지 경영자협의회(회장 이용범·이하 첨단경영)는 최근 구미국가산업단지 경영자협의회에 코로나19 방역물품을 후원했다. <광주첨단국가산업단지 경영자협의회 제공>

광주 산수2동 주민·통장·공무원 구와산 산책로 대청소



광주 동구(청장 임택) 산수2동 주민(구와산클럽 등), 통장, 공무원 등 30여명이 최근 동산로아파트 인근 구와산 산책로 일대대청소를 실시했다. 참석자들은 구와산 산책로 일대에 버려진 각종 쓰레기 약 5톤을 수거했다. <동구청 제공>

“스승과 추억이 담긴 사연 보내 주세요”

사학연금 다음달 6일까지 이벤트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사장 주명현·사진)이 스승의 날(5월15일)을 앞두고 다음 달 6일까지 관련 이벤트를 진행한다.

사학연금은 이 기간 동안 재직 교직원을 대상으로 사학연금 홈페이지에 스승과 추억이 담긴 사연을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스승과 특별한 추억을 가져거나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고 싶은 사학연금 가입자면 누구나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다.

주명현 이사장은 “이번 행사는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실시되고 있는 요즘, 교직원을 위한 비대면 서비스의 하나로 준비하게 됐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4월 28일(음 4월 6일 辛丑)

☎ 010-9790-8237

36년생 다양한 경로를 통해 진행될 것이라. 48년생 주변의 생활 관계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겠다. 60년생 조금만 더 나아가면 디딤돌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72년생 부담이 따를 수 있으니 각오하라. 84년생 온 하늘에 먹구름이 가득 보이니 강우에 대비 해야겠다. 96년생 눈에 띄지는 않지만 중요한 것이 따로 있음을 알아야 한다. 행운의 숫자 : 03, 55

37년생 관심을 갖고 살펴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 49년생 깊이가 있다면 어떠한 난관도 타개할 수 있다. 61년생 눈부신 햇살처럼 행운이 비추어 줄 것이다. 73년생 전체를 아우를 줄 아는 포용적 국량이 필요하다. 85년생 검은 구름이 걷히고 있으니 곧 해가 떠오르리라. 97년생 씩 웃어 구르는 돌은 이기가 낄 틈이 없으니라. 행운의 숫자 : 22, 92

38년생 발전적으로 이동하는 대국이나. 50년생 부진을 충분히 만회할 수 있다. 62년생 여러 사람들과 관련되다보면 복잡해지기만 하니 스스로 해내는 것이 무방하다. 74년생 혼자서 조용히 처리해도 되는 문제이다. 86년생 협력하여 조처한다면 능률을 배가할 수 있다. 98년생 기본 개념을 중시해야만 하느니라. 행운의 숫자 : 82, 86

39년생 부적절하다면 반드시 시정하거나 교체해 나가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1년생 전혀 다른 것이니 처음부터 관련시킬 필요는 없다. 63년생 집착하지 말라. 75년생 무리수를 둔다면 필패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87년생 흐르는 물처럼 순조로운 것이니 마음 편히 먹고 임하면 된다. 99년생 지금은 힘들더라도 점점 수월해질 것이니 진중하게 진행하자. 행운의 숫자 : 11, 75

40년생 심사숙고하지 않는다면 중요한 것을 잃게 된다. 52년생 사태는 불시에 발생하는 법이니 긴장을 늦추지 말라. 64년생 구색을 맞추다 보면 무리할 수도 있음을 알라. 76년생 부실해질 염려가 있다. 88년생 본래의 취지를 희석 시키지 말라. 00년생 치밀하지 않다면 뒤탈이 생길 여지가 있다. 행운의 숫자 : 27, 65

41년생 가장 실질적인 면에 매진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53년생 편견을 가진다면 단초가 생긴다. 65년생 대사를 도모할 수 있는 적기가 이르렀다. 77년생 순발력 있게 적응해야만 할 것이다. 89년생 확신을 갖고 차분하게 대응하라. 01년생 패자를 부르는 날이다. 행운의 숫자 : 42, 85

42년생 이해와 배려가 따른다면 파생 효과가 크다. 54년생 강력한 추진력이 절실히 요청되는 시기이다. 66년생 시의적절한 운로이니 활동 반경을 넓히는 것이 유리하다. 78년생 오매불망하던 것을 기다리며 하루를 다 보내겠다. 90년생 예상이 빗나가지는 않을 것이다. 02년생 진행 속도를 높여도 무방하다. 행운의 숫자 : 28, 60

31년생 발전을 위한 노고는 감수해야 하느니라. 43년생 구색을 맞추다보면 효율성이 하락할 수밖에 없다. 55년생 유사한 상황만 반복해서 계속 될 뿐이지 별다른 도움은 되지 않는다. 67년생 형세에 맞는 순발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79년생 태평성대의 길성이 비춰오고 있으니 매사가 길하리라. 91년생 매들이 풀리면 서 일사천리로 진행되겠다. 행운의 숫자 : 36, 95

32년생 빈틈없이 도모한다면 기필코 이루어지리라. 44년생 지속적인 노력이 기쁨을 가져다 줄 것이다. 56년생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 68년생 어떻게 행하느냐하는 방법론에 따라서 전혀 다른 상태가 될 수도 있다. 80년생 큰물에서 합류하게 되니 격동의 형세로다. 92년생 미처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로 보람을 느끼게 된다. 행운의 숫자 : 09, 88

33년생 여건이 조성되면서 전체적으로 기여하는 판국에 이른다. 45년생 운곽이 드러나기 시작 한다. 57년생 갑론을박하면서 여러 측면에서 복잡다단한 형상을 이룬다. 69년생 마무리가 확실해야 한다. 81년생 어두움이 사라지면서 희망찬 미래가 밝아 온다. 93년생 변화가 생기면서 다소 답답함을 느낄 수다. 행운의 숫자 : 23, 84

34년생 기회가 왔으니 앞뒤 재지 말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때이다. 46년생 다투면 손해수요, 양보하면 복이 되리라. 58년생 예감이 잘 맞아 떨어지는 하루가 될 것이다. 70년생 피하려 하지 말고 정면으로 돌파하라. 82년생 번거롭더라도 완벽하게 처리해둬야만 훗날이 안전 하리라. 94년생 희망의 소식이 들려오고 있느니라. 행운의 숫자 : 29, 57

35년생 중차대한 정보를 얻게 될 지도 모르니 귀를 열어 두자. 47년생 표면상으로 힘들어 보일지 모르나 종국적으로는 성사 되리라. 59년생 오늘의 일이 근간을 이룰 것이다. 71년생 실수만 하지 않는다면 원하는 목표에 도달한다. 83년생 현재의 기본적 양상과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면 버려라. 95년생 자연 발생적인 현상에 주목하자. 행운의 숫자 : 08, 71